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이 종 윤

Rev.

Lee Jong-Yun, Ph. D., D.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ichi-dong Kangnam-gu Seoul, Korea

Tel. 558-1106. Fax.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양과 염소"

(Sheep & goat)

■ 마태복음 25장 31-46절

4월은 유엔(UN)이 지정한 장애인의 달입니다. 오늘 본문말씀인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자가 주님을 대접한 자로 심판 날에 우편에 세워질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I. 그 날에 양과 염소가 구분되어 나뉘게 됩니다.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마25:33절). ①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②베고픈 자, 육신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③지극히 작은 자는 유대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창12:3절). ④사도 또는 선교사라는 입정도 있습니다(마10:40-42절). ⑤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나 그리스도 모드를 의미합니다. ⑥양과 염소의 구분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⑦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요일2:20-23, 4:2-3, 15, 5:1절). ⑧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요일2:3-6, 3:4-6, 5:2절). ⑨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느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요일2:9-11, 3:14, 4:7-21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를 사랑하고 돌보는지를 보아 양과 염소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II. 신앙과 행위, 즉 신행일치(信行一致)의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엡2:8-9절).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위에 근거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①성도가 선한 행실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증거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모범적인 행위를 하게 됩니다. ②그러나 그런 행위는 별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고픈 이, 목마른 이, 나그네, 할벗은 이, 병든 자, 갇힌 자를 도운 것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너무 작은 일이다 보니 의인들은 기억하지도 않았습다(마25:37-39절). ③너무 작은 일들이기 때문에 불의한 이들은 하지 않습니다(마25:44절). ④구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선을 행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⑤예수 그리스도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미미한 자, 쓸데없는 자, 무시 받는 자, 천대받는 자를 주님 대하듯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⑥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 성도는 희생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참사랑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됩니다.

III.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비추인 장애인이며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오늘 아무 쓸모도 없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정신지체아와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십니다(마25:30절).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벌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25:46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난주 이종윤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벽예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일예배	Ⅰ부	가족예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당 Ⅱ,Ⅲ,Ⅳ층
		분반공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반예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년예배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양예배		오후 5시	본당
수요일예배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Ⅰ부예배		오전 11시	본당
	Ⅱ부예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Ⅰ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년부	I부 (30대)	오전10시	401호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Ⅱ부 (40대)	오전10시
유아부(13개월-4세)	Ⅱ부	유치부 702호	Ⅲ부 (50대)		오전10시	401호	
			Ⅳ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Ⅲ부	오후 2시	Ⅴ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에바다부	Ⅰ부	오전11시20분	본당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Ⅱ부	오후2시	603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가족부	Ⅰ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Ⅱ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Ⅲ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3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3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요리문답부	오전10시,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Ⅰ·Ⅱ부	오후 12시40분		901·701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702호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T V	위성 채널 412 (CBS 기독교 방송) 매주 주일 오후 9시 (케이블 채널 시청가능지역 있음)	
	위성 채널 414 (CTS 기독교 TV)	
	케이블 채널 37 (CTS 기독교 TV)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라디오 HLKY 98.1 MHz (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HLKX 106.9 MHz (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인터넷	기독교 TV : http://cts.tv	
	CBS인터넷설교 : http://cbs.co.kr	
	중국어인터넷 : http://c-highway.com	
서울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
KISB 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 :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 (한국시간)		

부 목 사 이규정 **합성**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한상** **황 광** **박종민** **문성훈** **전도사** 지혜영
교 육 목 사 임규현 **이태훈**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전도사** 박광일 **김은숙**
협 동 목 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서홍원, 권금·조애스터(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중·강해정(카자흐스탄)
 스페르토티바로이, 조남해(방글라데시), 이재율·박병진·박진아·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라(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정혜(말라위)
 이형명·손해신(이스라엘), 박홍규, 김태식(군선교), 황선철(하와이),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Thawng Ngeih Mang·Cin Suan Mung·Ko Tin·Lay Hnin·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Joshua Cho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69:1-3, 14-16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3(2)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 45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Kwang Shin Kim
Hymn	298(35)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Samuel 21:1 - 22:5	Presider
Member's 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Salvation Medley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Sermon	Desperate Measures	Rev. Joshua Cho
* Hymn	384(434)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Desperate Measures

1 Samuel 21:1 - 22:5

Summary of the sermon

You may have heard the saying, "desperate times call for desperate measures." These were desperate times for David, who was running for his life, barely surviving one close call after another. At first, adrenaline carried him, but then, weariness set in. What got David through? God's quiet assurance that He still loved him and cared for him. In our weary moments, we must remember God's love for each of us.

First, God reminds us by providing. As David stopped at Nob, he was untruthful and endangered the priest. Still, David was permitted to eat the consecrated bread. Even when we are overwhelmed by the pressures of life, God provides in little ways like food. Next, God gives us mercy. While foolishly trying to hide in Gath (Goliath's hometown), David was brought to the king. Facing certain death, David took desperate measures and acted like a madman. Reflecting later in Psalms 34 and 56, David testified that it was God who had showed him mercy. We must never forget God's mercies in our foolishness. Also, God works through providence. When David's parents met him at Adullam, he left them in the care of the king of Moab. Most likely, this was because his great grandmother (Ruth) was a Moabitess. God doesn't just help us in the present moment, but every moment leading up to this moment. Finally, God speaks. Almost out of nowhere, a prophet named Gad gave David a word of guidance. God may not come with loud trumpets, but when we are disoriented, He gives us His voice in Scripture.

Weariness often comes to us when we allow the endless demands of life to drown out God's voice. We need to stop and listen, as He tells us, "I love you. I sent my only Son to die for you. I will be with you in your most desperate moments, even until the very end."

Announcement

Welcome to our ministry!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Next week is Children's Sunday! We plan to celebrate with a special sermon and gift. Please join one of our English Bible classes after fellowship to get plugged into our community. Friday Bible study is meeting in Rm. 603, 7-8pm. Come for the exciting conclusion of Galatian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황 광 목사	황 광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이규정 목사	이영기 장로
III	오후 2시	한상은 목사	하영수 장로

일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40:1-2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3(2) ...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부(십계명) ... 다 함 께
	2부:19(시 32편)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370(455)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빌 4:4-9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금,김치세미나 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	이종윤 목사
	("God's norm about uncertain things")
* 찬 송 Hymn	379(429) ...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 양 예 배

-남선교회 헌신예배-

오후 5시	· 인도:홍성주 장로 · 설교: 이종윤 목사
묵 도	다 함 께
성 시	계 2:10 ... 인 도 자
찬 송	9(53) ... 다 함 께
기 도	박두영 장로
찬 송	313(352) ... 다 함 께
성 경	마 27:32-44 ... 감동준 장로
찬 양	연합찬양대
설 교	"십자가 위에 왕이" ...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321(351) ...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 인도, 설교: 이규정 목사
II부 오후 7시	
기 도	I부: 이옥심 권사, II부: 서순희 권사
성 경	삼상 17:38-58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 설 교 자
선교보고	이재현선교사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한현숙 · 홍혜란
설 교	이종윤, 한상은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30분	웨스트민스터홀
설 교	박광일 전도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음악감독: 이 영 조-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영조	김정희	강민정	백경화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G. B. Pergolesi	고성진	오자경	김현주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주 찬송합니다. 알렐루야	Peter I. Tchaikovsky	류종기	김현정	김복희	구슬희
찬양예배	연합찬양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성자의 귀한 몸	E.P. parker/R. Lowry	김정훈	오신옥	박수강	구슬희
영어예배	예루살렘	Salvation Medley	Gim Gray	김문영	차주연	김수정	
수요 I부	호 산 나	어둔 죄악 길에서	김종덕	서희숙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D. Marsh	백경화	이순재	서유진	

<헌금송>

I부	고 등 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A. J. Gerdon	한현숙		박승기	
II부	그레이스랜드	구주 예수 의지함	Susan E. Geshke	송재월			
III부	아멘관현악단	Reaching for excellence	Kurt Kaiser	임범창		임아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정택영	10-6	베드로	유을상	신원석	6-10	별림	본인	이재도	12-15	대학부	최광성
박성수	16교구	안드레	서양지	유재영	12-13	청년2부	본인	이형우	12-15	대학부	유기룡/우원향
김정순	16교구	루디아	서양지	강윤자	6-10	도르가	본인	박준	16교구	중등부	서양지
이덕수	13-13	청년1부	임명숙조	김대훈	6-5	대학부	본인	박진진	교육1국	유년부	본인

앞면에서 계속

☐ 결 혼

1. 이소연 양(2교구 이용길, 이연구 집사의 차녀)과 박종관 군 / 5월2일(토) 오후2시 남산자이센터 웨딩홀

☐ 장례

1. 고 이송선 성도(11교구 이영조 집사, 이영자 권사의 장녀) / 18일(토) 별세 23일(목) 발인(미국)
2. 고 고준선 권사(14교구 안성현 집사 모친, 유숙인 집사 시모) / 21일(화) 별세 24일(금) 발인
3. 고 김귀한 집사(10교구 안분선 권사 모친, 김재근 집사 장모) / 25일(토) 별세 27일(월) 발인

우리의 비전(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교회학교 출석하기	서울교회 성도들은 예배 후 또는 예배 전에 모이는 교회학교에 연령별로 모두 참석하도록 합니다. 주보 6면의 교회학교 안내를 참고하여 성경공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품기 운동에 나도 참여합니다	우리교회는 '태신자 품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태신자로 작정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태신자카드'를 작성하여 교회에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전도편지도 보내드립니다.
--------------------------------	--



교회 주차장 사용을 양보합니다

우리교회 주차장은 교회당 크기에 비해 매우 비좁습니다.
 최근 새가족의 증가 추세와 함께 제일 큰 고민은 주차위원들에게 있습니다.
 멀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새신자들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차를 돌리는 모습을 본 주차위원들은 애석한 마음을 갖고 호소합니다.
 장시간 주차를 해야 하는 부서에 속한 이들은 대치역 앞에 있는 **강남구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해 줄 것을 바랍니다.
 '섬기겠습니다' 한 올해의 표어대로 새가족을 위해 작은 희생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빔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